

## 생僻자(生僻字) 부활 언어 현상 고찰\*

김미성\*\*

### 목 차

1. 서론
2. 중국 문자와 도상성
3. 중국의 생僻자 전승과 보존 정책
4. 중국의 생僻자 부활 현상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생僻자 부활 현상을 중심으로, 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부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생僻자를 추출하여 그 의미와 쓰임새를 고찰하였다.

생僻자의 부활 원인을 도상성과 중국의 언어 정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도상성은 자형과 의미 간의 직관적 연결을 통해 생僻자가 현대적 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생僻자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며, 전통 문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僻자가 단순히 과거의 문자 체계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소통 환경에 적합하게 의미적으로 변형되거나 새롭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문자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실질적 가치를 지닌 언어 자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4S1A5B5A17036252)

\*\*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키워드: 생벽자, 도상성, 언어 정책, 생벽자 부활, 한자보존

## 1. 서론

중국 문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보존되어 온 위대한 발명으로, 그 독창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세계의 여타 문자들이 상형적 특성을 점차 상실하고 표음 문자로 전환되면서 과거와 단절된 경향을 보였던 반면, 중국 문자는 기본적인 상형성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문명의 진화와 더불어 중국 민족의 사고, 지혜, 그리고 문화가 점차 확장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수의 새로운 문자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문자 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하였다.

동한 시기 허신의 『說文解字』의 경우 기본글자 9,353자와 중문(重文)을 합쳐 10,516자가 수록되었고, 남조 양나라 고야왕의 『玉篇』은 16,917자, 송나라 『廣韻』은 26,194를 수록하였고, 14세기 명나라 시기 편찬된 『洪武正韻』은 32,200자, 18세기 청나라 시기 편찬된 『康熙字典』은 47,043자를 수록하였고, 20세기에 60년대에 편찬한 『中文大辭典』은 49,888자를 수록하였고, 80년대 『漢語大字典』은 54,678자를 수록하였다.<sup>1)</sup> 1994년에 최대한 많은 문자를 모은 가장 포괄적인 사전인 『中華字海』에 85,568자가 수록되었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한자와 파생된 한자를 계산할 경우 10만자를 훨씬 넘을 수 있다.<sup>2)</sup>

위와 같이 사전에 수록된 글자의 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 중에는 실생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고문자, 이체자, 변체자 등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한자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sup>3)</sup>

1) 위의 내용은 裘錫圭(이홍진 번역, 2010), pp.73-74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現代漢語大字典』에서는 『玉篇』에 22,726자가, 『康熙字典』에 47,035자가 수록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문에서 언급한 『玉篇』의 16,917자 및 『康熙字典』의 47,043자와 차이가 있다.

2) 조수휘·리처드B. 발도프 주니어(전국조 번역, 2023), p.278 참조.

문자의 생성 이후, 모든 한자가 동일하게 보존된 것은 아니다. 일부 한자는 사용 빈도가 낮아지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 역사 속으로 묻히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명력을 다한 한자를 ‘생僻자(生僻字)’라고 부른다.<sup>4)</sup>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인명이나 지명에는 이러한 생僻자가 자주 등장한다. 이들 중 다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코드가 없어 입력이나 표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sup>5)</sup>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던 생僻자가 부활하는 언어적 현상을 최근 많이 볼 수 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 그리고 문물의 탄생은 새로운 문자 혹은 단어를 창조하는데 인터넷과 네트워크 문화의 보편적인 보급과 더불어 이 문화에 맞는 언어 표현을 위해 기존의 생僻자를 사용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에서 생僻자 계승과 보존 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생僻자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CNKI(中國知網)에 ‘生僻字’를 편

3) 자전에 실린 모든 글자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중국 국무원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통용 언어 및 문자의 표준화와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사회 및 문화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용규범한자표(通用規範漢字表)》를 반포하였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1급 한자 3,500자, 출판·인쇄·사전·편찬·통신 등에 사용되는 2급 한자 3,000자, 인명·지명·과학기술·문어체 문장에 사용되는 3급 한자는 1,605자로 구성되어 있다.

4) 조수희와 리처드 B. 발도프 주니어(전국조 번역, 2023)는 영어의 Rare Characters를 줄여 ‘RC’ 또는 ‘희귀자’로 번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生僻字’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인 ‘생僻자’로 명명하고자 한다.

5)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행정 업무, 공공 서비스, 문화 콘텐츠 제공 등이 네트워크화 및 스마트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름에 생僻자가 포함된 사람들이 사회보장, 주택기금 처리가 원활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실명 인증이 불가능하며, 모바일 앱의 실명 인증에서 장애를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명에 포함된 생僻자를 대체 가능한 흔한 한자로 변경함으로써 원래 지명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기억이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일반 표준 한자에 대한 정보화 처리는 거의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자가 추가 연구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전국적으로 약 6천만 명의 이름 및 다수의 지명, 고서, 방언에 희귀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는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생활의 편리성 향상이나 전통문화 계승의 관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羅群(2023), 「漢字守護計劃：以科技力量推動漢字數字化進程」, 中國文化報, 참조.

명으로 검색한 결과, 학술논문은 78편, 학위 논문은 12편이 포함되어 있다. ‘冷僻字’로 검색했을 때 학술논문 10편이 검색된다.<sup>6)</sup>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생僻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검색사이트 RISS에서 ‘생僻자’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학술논문 4편이 검색된다.<sup>7)</sup> 이 4편의 논문도 다른 내용을 연구하면서 생僻자를 잠깐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활 생僻자를 탐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부활하여 사용되고 있는 생僻자를 추출하고, 이들의 의미와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생僻자의 부활 현상의 원인을 도상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생僻자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언어 정책에 대해서도 고찰할 예정이다.

이러한 생僻자 부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 문자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문자학 및 관련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중국 문자와 도상성

세계 대부분 문자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sup>8)</sup> 문자가 표현하려는 내용과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 간의 관

6) ‘冷僻字’는 ‘生僻字’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생僻자와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낮아 드물게 사용되거나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生僻字’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7) 森博達(2010)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漢字文化의 影響森博達」, 森博達(2011)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의 漢字文化의 影響(續篇)森博達」, 양준영(2022) 「『三字經』中的生僻字教學初探」, 김은희(2018) 「중국 인명용자 규범의 변화 양상 고찰」이 있다.

8) 문자의 첫 시작은 각각의 민족이 같은 모습으로 전개되었는데 수메르인, 이집트인, 히타

계가 직접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도상성(圖像性, iconicity)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도상성의 개념은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 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sup>9)</sup> 퍼스는 기호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 중 도상성은 기호 형태와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닮음 또는 유추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자의적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어의 기호는 현실 세계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 기호와 그 의미 간의 관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상성은 소쉬르의 자의성(恣意性, arbitrariness) 개념과 대조적으로, 기호와 대상 간의 자연적 연결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도상성의 관점에서 중국 문자를 살펴보면, 세계의 다른 문자보다 도상성 이론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이는 중국 문자가 문자 발생 초기의 상형성을 버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세계의 많은 문자가 그림문자, 즉 상형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의 상형성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였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주로 신전, 왕실 기록,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었으며, 그림적인 요소와 발음 및 의미를 복합적으로 나타내

---

이트인, 크레타인, 중국인의 문자의 시작은 그림문자였으며 각 민족들이 비록 아주 다른 문명권에서 발달했어도 각 지역의 문자 체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일부 그림 문자들은 그 형태가 아주 유사함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르주 장(이종인 번역, 2004) pp.46-47 참조.

9)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기호를 기호와 대상(참조물)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도상은 기호와 대상이 유사성을 가지며, 형태나 속성을 본떠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상형문자나 지도는 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표는 기호와 대상 간에 물리적 연결이나 인과 관계가 있어 대상을 암시하거나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예로는 연기가 불을 나타내거나 발자국이 사람의 흔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상징은 기호와 대상이 임의적 관계를 가지며, 관습이나 사회적 약속에 따라 그 의미가 형성된다. 언어, 수학 기호, 교통 신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 유형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퍼스의 이론은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기호학, 언어학, 문화 연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기록에서는 간략화된 신품문자(hieratic)와 민용문자(demotic)로 대체되었다. 이후 기독교의 확산과 로마 제국의 통치로 인해 종교적 및 문화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상형문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중국 문자는 초기 상형성을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확장은 단순히 글자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자 운용 방식을 점차 정교화하며 고도화된 체계를 형성하는 데 이르렀다. 중국 문자의 형성과 운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허신의 『說文解字』에 제시된 육서(六書)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육서는 한자의 형성과 운용 원리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문자 구조와 그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육서는 한자에 내재된 도상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문자 형성과 의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문자가 어떻게 도상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sup>10)</sup>

상형(象形)은 사물이나 자연 현상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중국 문자의 도상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형문자는 대상의 외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도상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예를 들어, 초기 상형자는 사물의 형태를 그림처럼 묘사하여 구체적인 대상의 이미지를 문자 형상에 직접 반영했다. 이러한 상형문자는 문자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초기 중국 문자의 시각적 특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상형자가 전체 문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이후 문자 체계의 확장 과정에서 기본 재료로 활용되며 문자의 형성과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초기 상형문자는 강한 도상성을 바탕으로 글자의 형태만으로도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과 기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획이 간소화되고 기호화되었다. 예를 들어, 거북을 뜻하는 ‘龜’의 상형

10) 임지룡(1995)은 육서 중 도상성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형·지사·회의로 간주하고 있다. 박경송(2010)은 임지룡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상형·지사·회의가 도상성을 가지며 나아가 전주와 형성자의 도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차의 경우 자의성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자는 갑골문에서 측면 모습을 형상화한 𠄎로 나타났으며, 금문에서는 거북의 정면 모습을 형상화한 𠄎로 나타났다. 이들 초기 형태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龜’자는 이러한 도상적 특징이 간소화되고 정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문자를 보다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사용 편의성과 기록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형화는 상형의 형태를 단순화하는 과정이었지만, 도상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초기 상형문자는 구체적인 사물의 외형을 반영하는 그림에 가까운 형태였으나, 정형화와 추상화 과정을 통해 시각적 특징이 효율적인 기호로 재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日’이나 ‘月’과 같은 한자는 초기에는 각각의 외형을 그림처럼 묘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선과 형태로 정리되었다. 정형화된 상형문자는 단순히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이고 정교한 언어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상형문자는 기호화 과정을 통해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물의 특성과 연관된 도상적 의미를 보존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했다.<sup>11)</sup> 이는 상형문자가 도상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문자 체계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지사(指事)는 형태가 없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 기호로 표현한 글자로, 중국 문자의 도상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사자는 사물의 위치, 방향, 수량 등 추상적 개념을 간단한 점, 선, 또는 특정 기호의 배치로 나타내며, 기호와 의미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도상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지사자의 대표적인 사례인 ‘上’과 ‘下’는 각각 짧은 선과 긴 선을 위아래에 배치하여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배치는 추상적 개념인 위와 아래를 시각적으로 직관화함으로써, 도상적 원리를 통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한다. 이는 지사자가 기호화된 방식으로 도상성을 구현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

11) 한자의 자형 변천 과정에서 독립된 상형 문자(독체자)는 기호화되었지만, 합체자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때는 도상적 의미를 유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日’은 기호로 변했으나, ‘晴’에서의 ‘日’은 여전히 본래 의미를 반영하며 의부로 기능한다. 裘錫圭(이홍진 번역, 2010) pp.73-74 참조.

다. 唐蘭(2017:118)은 지사자를 추상적 상형문자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상형문자와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사자가 단순히 추상적 기호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형문자와 마찬가지로 도상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지사자가 상형문자와 마찬가지로 도상적 원리를 공유하며 중국 문자의 구조와 의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 것이다. 즉, 지사자는 추상적 개념을 단순화된 기호로 표현하면서도 도상적 의미를 보존한 문자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문자가 단순히 외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상적 개념까지 도상적 원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회의(會意)는 두 개 이상의 기존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한자의 한 유형으로, 도상성을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회의자는 각 구성 글자가 지닌 시각적 또는 상징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조합을 넘어 새로운 개념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기호와 의미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도상성이 글자의 내적 구조와 의미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明’은 ‘日’과 ‘月’을 결합하여 빛이 밝다는 의미를 형성한다. 해와 달은 각각 빛을 상징하며, 이 둘의 결합은 ‘밝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상적 원리에 따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또 다른 사례인 ‘武’는 ‘戈’과 ‘止’를 결합하여 전쟁과 관련된 무력을 나타낸다. 창은 전쟁 도구로서의 상징성을, 발은 움직임을 나타내며,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복합적 개념이 형성된다. 이러한 회의자는 구성 요소의 도상적 특징을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며, 문자 체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한다. 회의자는 도상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글자의 시각적·상징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중국 문자의 구조적 다양성과 의미적 깊이를 확장시킨다.

형성(形聲)은 중국 문자의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sup>12)</sup> 도상성과

12)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에 실린 형성문자는 8,057개로 약 80%를 차지하며 鄭樵의 『六書略』에서는 상형류 608자, 지사류 107자, 회의류 740자 포함해서 1,455자 인데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성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부(形符)’와 발음을 나타내는 ‘성부(聲符)’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문자 체계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형부를 통해 도상적 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형부는 문자의 의미적 범주를 시각적으로 암시하여 사용자가 글자의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성부는 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발음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글자의 의미 형성에도 기여한다. 허신은 『說文解字』에서 성부가 글자의 발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글자의 의미를 암시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성부가 소리와 의미를 겸하는 역할에 대해 ‘亦聲’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성부가 단순한 표음적 역할을 넘어 의미 형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이후 제기된 우문설(右文說)과 인성구의(因聲求義)는 ‘亦聲’의 개념을 발전시키며, 형성자의 성부가 발음뿐만 아니라 글자의 의미까지 나타낼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북송 시대 학자인 王聖美는 한자 합체자의 오른쪽 성분인 우문(右文)이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성부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글자의 의미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沈括의 『夢溪筆談·卷十四』에 王聖美의 견해를 적용하여 ‘淺’, ‘錢’, ‘殘’, ‘賤’ 등의 예에서 공통된 성분인 ‘戔’은 ‘작다’라는 의미를 공유한다고 했다.<sup>13)</sup> 이처럼 우문이 의미 작용을 한다는 견해는 성부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넘어 독립적인 의미와 발음을 가지며, 합체자의 의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게 우문의 의미적 역할과 한자 의미망의

해성류(諧聲)는 21,314자로 무려 15배 달한다고 언급했다. 문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형성문자의 비중은 더욱 커졌으며 형성문자의 시대에 남겨진 그림문자는 극소수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더욱 적었다. 唐蘭(오만중 외 번역 2017) pp.162-163참조.

13) “王聖美治字學，演其義以爲右文。古之字書，皆從左文。凡字，其類在左，其義在右。如水類，其左皆從水。所謂右文者，如戔，小也，水之小者曰淺，金之小者曰錢，歹而小者曰殘，貝之小者曰賤，如此之類，皆以戔爲義也。”

형성과 파생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청대 학자들은 ‘因聲求義’라는 개념을 통해 성부의 역할을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적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글자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삼았다. 이 개념은 성부가 발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로 작용한다고 보며, 성부를 독립적인 발음과 의미를 가진 복합적 요소로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清’에서 성부 ‘青’은 발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의미를 연상시키며, ‘湖’에서 성부 ‘胡’는 발음을 제공하면서 글자가 물과 관련된 넓은 장소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因聲求義의 관점에서 성부는 글자의 의미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며, 시간이 지나도 의미를 보존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는 성부가 글자 전체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한자 구조와 의미의 관계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였다.<sup>14)</sup>

가차(假借)와 전주(轉注)는 중국 문자의 운용 원리로 알려져 있다. 가차는 본래 새로운 글자를 창조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던 동일한 소리의 글자를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문자 생성 방식이다. 가차는 도상성에 기반한 초기 한자의 특성을 확장하여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나, 음의 자의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중국 문자의 도상적 전통과 충돌하며 점차 형성자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이, 가차자는 한자의 발전 초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형성자의 발전과 함께 점차 그 역할을 줄이며 한자 체계의 발전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다.<sup>15)</sup>

14) 청대 학자들의 ‘因聲求義’는 단순히 소리와 의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자 분화와 의미 파생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문수정(2012)은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古今字’ 관계 설정이 ‘因聲求義’의 구체적 실현 사례임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형성자의 성부가 단순한 표음 요소를 넘어 의미작용의 중심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段玉裁는 특정 글자의 성부를 통해 글자 간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언어 변화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宋代 학자 王聖美的 ‘右文說’에서 제기된 형성자 성부의 역사성과도 연결되며, 형성자 성부가 의미 파생의 핵심 축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주(轉注)는 한 문자가 본래 의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는 한자의 독특한 운용 방식 중 하나이다. 전주는 한자가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현상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원리로, 한자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보여준다. 徐通鏞(1997:267)은 전주를 “轉注者, 借字臨摹也(전주란 기존 글자를 빌려 모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전주는 상형, 지사, 회의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된 한자의 구성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전주의 본질을 모사(臨摹)와 연결하여 설명하며, 모사는 본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현상도 모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주의 특징은 개념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존 글자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사물과 추상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게 한다. 예를 들어, ‘樂’은 본래 음악을 뜻했으나 이후 ‘즐겁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음악과 즐거움이라는 개념적 연관성에서 비롯되었다. 또 다른 예로, ‘考’는 ‘노인을 공경하다’라는 본래 의미에서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했는데, 이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검증한다는 개념적 유사성을 반영한 것이다.

가차는 기존 문자의 음을 차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도상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문자의 형태와 음을 새로운 의미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전주는 기존 의미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며, 개념적 연관성을 통해 의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15) 류동춘(2001)은 가차가 한자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문자와 언어의 결합을 가능하게 했지만, 구체적인 의미 구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차가 동음어를 기록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했으나, 동음어 간의 의미 구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형성법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차는 한자의 상형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음소적 표현의 가능성을 제고하였지만,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문자 숭배 전통으로 인해 병음문자 체계로 발전하지 않고 형성법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한다.

### 3. 중국의 생僻자 전승과 보존 정책

언어 정책은 특정 사회나 국가가 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언어 변화와 발전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20세기 중반 간체자 도입과 표준화 정책을 통해 한자의 복잡성을 줄이고 문맹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정책은 한자의 학습과 사용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 통합과 교육적 접근성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생僻자와 같은 희귀 문자는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간체자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점차 배제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고문서나 고전 문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복잡한 자형들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용되지 않거나 대체되었으며, 일반 대중은 생僻자를 접하거나 활용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생僻자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의미도 함께 희석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1986년 열린 전국언어문자사업대회는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하며 중국의 문자 개혁 방향을 재정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회의에서 한자의 표음문자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전통 한자와 간화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문자 개혁이 단순히 실용적 효율성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소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간화자 중심의 문자 개혁은 그 한계를 드러내며, 전통 문자를 보존하고 이를 현대 사회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생僻자(生僻字)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문자 자체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현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방대한 문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은 현대 정보화 사

회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언어 자원의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문자 체계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문자 문화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정보 기술 표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信息技術中文編碼字符集(정보 기술 중국어 코딩 문자 집합)》이다.<sup>16)</sup> 이는 중국 정보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표준으로, 한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문자를 통합적으로 인코딩한 것이다. 중국어 처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활용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이 표준은 문헌, 과학기술,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국가 차원의 언어 정보화 및 디지털 자료 보존과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표준은 처음 2000년에 발표되었으며, 2005년에 첫 번째 개정을 거쳐 중국어 정보 처리 및 교환의 필요를 충족시켰다.<sup>17)</sup>

2022년 7월 발표된 《信息技術中文編碼字符集(GB 18030-2022)》은 생僻자 부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표준은 약 88,115개의 한자를 포함하며, 그중 17,000여 개의 생僻자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는 생僻자의 디지털화를 통해 문자 사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생僻자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조치였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1월, 텐센트는 공업정보화부 전자산업표준화연구원과 함께 ‘한자 수호 계획(漢字守護計劃)’을 출범시켰다. 이 계획은 생僻자의 수집, 고증, 코드 할당, 자형 디자인, 홍보 및 응용 확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이름, 지명, 고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생僻자를 디지털 환경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텐센트의 ‘搜狗輸入法’은

16) 중국 국무원의 표준화 업무 개혁 심화를 위한 통합 계획에 따라, 국무원은 《國家標準公開推進實施方案》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 문서를 점진적으로 공개하였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全國標準信息公共服務平台(<https://std.samr.gov.cn>)’은 국가 표준(國標), 산업 표준(行標), 지역 표준(地標), 단체 표준(團標), 기업 표준(企標) 등 다양한 표준 문서를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국가 표준 항목을 통해 《信息技術中文編碼字符集(정보 기술 중국어 코딩 문자 집합)》를 열람할 수 있다.

17) 孫博洋, 〈生僻字, 以后可以打出來了〉, 《人民網》, 2022年7月29日 참조.

생僻자를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새롭게 도입된 ‘생僻자 공모(生僻字征集)’기능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입력되지 않는 글자를 사진으로 제출받아 국가 표준으로 등록하고 디지털화 과정을 가속화했다. 생僻자의 부활은 단순히 문자 체계의 복원이나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sup>18)</sup>

2022년 11월 ‘한자 수호 계획(漢字守護計劃)’이 시작된 이후, ‘생僻자 공모(生僻字征集)’를 통해 총 2만 개 이상의 생僻자가 3,500만 명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중 102개의 생僻자는 초기 심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올해 9월 코딩 절차에 들어가며, 《信息技術中文編碼字符集》에 포함될 예정이다.<sup>19)</sup>

이와 같은 생僻자의 복원과 표준화 작업은 현대 중국어 체계에서 생僻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생僻자는 단순히 희귀 문자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이름, 지명, 고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특히, 생僻자의 디지털화는 공공 서비스와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僻자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현대적 언어 체계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생僻자는 전통문화 계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생僻자의 기원과 의미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고대 문헌 해석 및 보존, 방언 연구 등 학문적 영역에서도 생僻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언어 정책은 생僻자의 보존과 전승을 통해 전통 문자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생僻자는 단순한 복원을 넘어, 현대와 미래를 이어주는 상징적 언어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18) 央广网, 〈生僻字可輸入, 騰訊聯合工信部電子標準院、漢儀字庫發起漢字守護計劃〉, 2022年11月11日 참조.

19) 中國新聞網, 〈生僻字征集小程序上線“漢字守護計劃”公益行動全新升級〉, 2023年4月23日 참조.

#### 4. 중국의 생벽자 부활 현상

현대에 이르러 생벽자의 부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보편화, 한자체계의 유연성, 도상적 특성,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언어 정책 등이 결합되어 촉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 문자의 도상성 특징은 문자와 의미 사이의 직관적 연결성을 통해 생벽자를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소통 도구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 또한, 생벽자의 보존과 전승은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전통 문자가 현대 사회에 통합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부활되어 사용 중인 생벽자의 사례를 통해, 부활한 생벽자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sup>20)</sup>

우선 ‘冫’자를 살펴보겠다. ‘冫’은 갑골문에서부터 사용되었다. 『新編甲骨文字典:401~402』에서 ‘冫’은 “象窗牖中有交叉之形(창문들의 교차하는 형태를 나타낸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대 건축물의 창문 모양과 흡사한 상형자이다.<sup>21)</sup> 『說文解字』는 ‘冫’자에 대하여 “窗牖麗慶闔明. 象形. 凡冫之屬

20) 唐璐璐(2022)은 글자의 구조적 특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글자의 의미와 음운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는 30개의 생벽자를 분류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冫(jiǒng) | 𠂔(méi)  | 𠂔(nì)  | 冫(yín)   | 冫(kūlùè) |
| 𠂔(yáo)   | 天(tiān) | 𠂔(lè)  | 𠂔(jiào)  | 𠂔(biáo)  |
| 𠂔(zhào)  | 𠂔(bìng) | 𠂔(tān) | 𠂔(xiān)  | 𠂔(gū)    |
| 𠂔(jiào)  | 王(sù)   | 𠂔(mó)  | 𠂔(jiàng) | 𠂔(biāo)  |
| 𠂔(suó)   | 𠂔(mā)   | 𠂔(hào) | 𠂔(guā)   | 𠂔(pá)    |
| 𠂔(jiān)  | 𠂔(mò)   | 𠂔(bì)  | 𠂔(rén)   | 𠂔(yì)    |

먼저, 직관적 표정의 표현으로는 ‘冫’이 있으며, 이는 감정이나 표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했다. 사물의 이미지적 의미를 표현하는 예로는 ‘王’이 있다. 또한, 정도를 강조하는 문자로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두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로는 ‘冫’, ‘冫’ 등이 사용된다고 했다.

皆從囧. 讀若獮. 賈侍中說: 讀與明同. 俱永切.(창문의 틀이 교차되어 밝게 빛남을 말한다. 상형이다. 경(囧)부수에 귀속된 글자들은 모두 경(囧)이 의미부이다. 광(獮)과 같이 읽는다. 가시중(賈侍中)의 설에 의하면 명(明)과 똑같이 읽는다고 한다. 독음은 구(俱)와 영(永)의 반절이다.)”<sup>22)</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玉篇·囧部』에서도 “囧, 大明也(크게 밝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現代漢語詞典 7版(2016:696)』에서는 ‘囧’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첫 번째로 ‘光(빛, 광채)’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明亮(밝다, 환하다)’을 나타낸다고 했다.

‘囧’자는 갑골문 시대 이후 사용 빈도가 줄어들며 생략자로 남았으나,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 글자는 사람의 얼굴 모양과 비슷한 외형적 특징 덕분에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글자 구조에서 ‘匚’는 얼굴의 윤곽을, ‘八’은 슬픔이나 낙담으로 처진 눈썹을, ‘口’는 놀라거나 당황하여 벌어진 입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외형적 도상성은 슬픔, 당혹감, 난처함과 같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해, 자연스럽게 감정 기호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囧’자는 발음이 ‘곤란하다’를 뜻하는 ‘窘(jiǒng)’과 유사하여 음운적으로도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문자를 창조하지 않고 기존 글자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한자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유연한 문자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에서 ‘囧’자의 부활은 이모티콘 사용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모티콘은 감정과 아이콘을 결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囧’자는 이러한 특징과 결합하여 감정

21) 중국 상주 시대 사람들의 주요 건축 방식은 반혈식(半穴式) 건축으로, 집의 절반이 지하에 위치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구조는 겨울철 보온에 유리하지만, 채광이 부족하고 실내가 낮에도 어두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울 경우 실내에 연기가 차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창(天窗, 지붕에 낸 작은 창문)을 설치하여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천창 구조는 후대에 이르러 벽에 설치된 원형 창문 형태로 발전하였다.

22) 『완역 설문해자』 2, 하영삼 역(2022), p.1906 참조.

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로 변모하였다. 단순한 시각적 기호를 넘어 사용자의 심리와 맥락을 반영하며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BCC 코퍼스에서 ‘ㄷ’을 검색하면 20,561개의 사례가 검색되며, 이는 ‘ㄷ’이 이미 매우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 쓰임은 점차 확대되어 형용사, 명사, 동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up>23)</sup>

결론적으로, ‘ㄷ’자는 고대 창문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에서 출발해, 인터넷 문화 속에서 감정을 상징하는 기호로 진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 글자의 부활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상성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ㄷ’자를 살펴보려고 한다. 『說文解字』에는 ‘ㄷ’라는 글자가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說文解字注』에서 “古文某 從口者, 甘之省也. 兩之者, 兒其醜醜.( 고문의 ‘某’ 자는 ‘口’를 따른 글자로, ‘甘’의 생략형이며, ‘兩’은 신맛과 짠맛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康熙字典』에서는 “古文梅字(‘梅’자의 고문

23) ‘ㄷ’자의 현대 사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朱聖潔, 2016)참조.

1.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사람의 답답함, 슬픔, 난감함, 궁지, 놀람, 어쩔 수 없는 감정 등을 나타내거나 사물이나 사람의 행동이 괴상하고 특이함을 나타냄.
  - 這部電視劇很ㄷ很雷人.
  - 最近的處境, 讓我覺得很ㄷ.
  - 十种ㄷ的電腦密碼設置方式.
2. 형용사가 동사로 활용되는 경우: 외부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내면에서 놀람, 난감함, 곤란함, 어쩔 수 없음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함.
  - 你在舞台上這麼做的話, 肯定會ㄷ死觀眾的.
  - 你ㄷ到我了.
3. 형용사가 명사로 활용되는 경우: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특정함.
  - 一日一ㄷ.
4. 독립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로 포럼이나 인터넷 채팅에서 사용된다.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그 상황이 난감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ㄷ’으로 응답하는 경우. ‘ㄷ’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문맥에 따라 동의, 한숨, ‘에...’, 난감함 등을 나타냄.
  - 甲:我這次英語考試正好59分. ▪ 乙:ㄷ.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罨’는 고대에는 ‘梅’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매화나무를 상징하는 글자였다. 매화나무는 단순히 자연물을 넘어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고, 약용으로도 사용되었다. 한자의 자원(字源)으로 볼 때, ‘梅’는 단순히 꽃을 의미하기보다 신 열매(酸果)를 나타내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된 나무를 상징하였다.

현대에 와서 ‘罨’는 두 개의 ‘罨’를 결합한 글자로 ‘罨’가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어리석음을 넘어 더욱 과장된 어리석음이나 순진함을 나타내는 글자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고대의 신성한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는 현대 한자 사용에서 글자의 본래 의미보다 직관적인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의미를 유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BCC 코퍼스에서 ‘罨’를 검색하면 211개의 사례가 검색되며, 이는 ‘罨’자가 인터넷 유행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4)</sup>

‘罨’의 해석은 양적 도상성(量的圖像性)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양의 원리는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를 말한다.<sup>25)</sup> 양적 도상성은 동일한 기호를 반복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자 사용자가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罨’에서 두 개의 ‘罨’가 결합되기 때문에 ‘罨’의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글자의 본래 의미를 직관적으로 강화하며, 이러한 반복적 중첩은 상형문자 및 초기 문자 체계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일한 글자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거나 확장하는 관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𠂔’ ‘𠂔’ ‘𠂔’ ‘𠂔’ 등의 글자는 양적 도상성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다.

24) ‘罨’자의 현대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형용사로서의 사용: 사람이 어리석거나 상황이 난처하며, 우스꽝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蜜交了一个外國男朋友, 發展到了罨罨的階段.
2. 독립된 표현으로 사용: 인터넷 유행어 및 반복적 감정 표현으로서의 사용
  - 我爸一臉膾腴, 說去年太冷, 忘了貼. 罨罨.

25) 임지룡(2004)참조.

2024년 설에 “龍行龘龘, 前程朧朧, 生活鱣鱣, 事業燦燦……” 등의 덕담이 새해 인사에 자주 등장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龘’, ‘朧’, ‘鱣’, ‘燦’와 같은 글자는 각기 상징적인 도상성을 통해 새해의 희망과 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龘’는 『說文解字』에 수록된 ‘龘’에서 유래되었으며, 용이 비상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는 새해에 용이 비상하듯 기개가 양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朧’은 ‘朗’의 이체자로, 네 개의 ‘月’로 구성되어 있어 밝은 달빛과 광명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는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도를 상징한다. ‘鱣’은 『說文解字』나 갑골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康熙字典』과 『玉篇』에 수록되어 있다. 『說文解字』에는 물고기 ‘魚’가 두 번 중복된 ‘鱣’와 세 번 중복된 ‘鱣’만 수록되어 있는데, 물고기 ‘魚’는 ‘餘(yú:여유)’와 발음이 같아 풍요를 상징하며,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니는 모습 또한 여유로움을 암시한다. 이에 ‘鱣’ 역시 풍요롭고 여유로운 새해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燦’은 네 개의 ‘火’로 구성되어, 불꽃의 생동감과 강렬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한다. 이처럼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함으로써 해당 의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중첩된 글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의미는 더욱 복잡하고 강렬하며, 중요성과 풍성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양적 도상성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도상성은 단순히 개별 한자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인터넷 환경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又双叒叕(yòu shuāng ruò zhuó)’이다. ‘又双叒叕’는 네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에 자주 나타났던 사물이 다시 등장하거나, 자주 발생했던 사건이 다시 발생함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又’는 ‘다시’, ‘또’를 의미하는 글자로 반복을 나타낸다. 그러나 ‘又’ 하나만으로는 반복의 정도를 충분히 강조할 수 없기에, 두 개의 ‘又’를 조합한 ‘双’이 추가되었고, 이어서 세 개의 ‘又’를 조합한 ‘叒’, 네 개의 ‘又’를 조합한 ‘叕’가 더해져 함께 사용되면서 더욱 강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기호를 반복하고 중첩해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은 고대 문자

체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도상적 원리와 현대 인터넷 문화가 결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又双叒叕’는 처음 일본 아사히신문의 중국어 사이트에서 사용된 이후, 중국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본래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던 표현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 점차 완화되고, 유쾌한 농담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ㄹ’자와 같은 한자의 반복적 조합뿐만 아니라, ‘又双叒叕’같은 인터넷 신조어에서도 양적 도상성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시각적 직관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ㄹ’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ㄹ’자는 ‘天’자와 동일한 글자로 ‘天’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說文解字』에는 ‘天’자의 해석은 있지만 ‘ㄹ’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康熙字典』에서는 ‘ㄹ’자에 대해서 “古文天字(‘天’자의 고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ㄹ’자의 자형을 살펴보면 위에는 ‘王’이고 아래에는 ‘八’자 인데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wángba’가 된다. 중국에서 ‘王八’는 욕설로 수치를 모르는 놈, 철면피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두 글자가 아닌 하나의 글자로 ‘ㄹ’을 사용하여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의미는 천자와 황제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현재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원래의 발음은 ‘tiān’이지만 ‘wángba’로 읽는다. 이 글자는 기존의 ‘王八’를 하나로 축약한 형태로, 이는 형태적 도상성의 사례에 속한다. 음성적으로도 본래의 발음인 ‘tiān’ 대신 욕설로 전환된 ‘wángba’로 사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기존에 자주 사용되는 글자와는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ㄹ’이 본래 하늘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욕설로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도 사용되고 있다.<sup>26)</sup> 이는 현대 인터넷

26) BCC 코퍼스에서 ‘ㄹ’을 검색하면 대부분이 ‘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문화에서 사용자들이 언어적 창의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熨’자를 살펴보면, 『說文解字』에는 수록되지 않는 글자이다. 원래 뜻은 ‘광명’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 유행어로 사용되며, 특정 사물이나 사람의 눈부시고 돋보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BCC 코퍼스에서 ‘熨’를 검색하면 24개의 사례가 검색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수가 검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熨’는 게임 방송에서 선수의 뛰어난 플레이를 묘사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이 매우 돋보일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빛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임 방송에서 ‘這個選手真是太熨了!’는 ‘이 선수 정말 대단히 멋지다’는 뜻으로 쓰이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這個明星真是太熨了!’처럼 특정 인물의 주목 받는 모습을 표현한다. ‘熨’은 본래의 의미인 광명이라는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 인터넷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단어로 발전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한자로서뿐만 아니라, 현대 인터넷 유행어로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忞’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글자이다. 그러나 현대적 시각에서도 상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고대에는 ‘仁’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의미적으로는 ‘仁愛(어질고 사랑함)’나 ‘親(친밀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忞’이 ‘仁’의 이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글자의 원형적 의미 대신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를 바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忞’의 자형은 ‘二’와 ‘心’이 결합된 형태로, 두 개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본래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忞’은 어떤 대상이나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부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글자의 자형이 의미와 연결되며, 시각적 요소를 통해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도상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

방언이나 인터넷 문화에서 ‘熨’은 장난스럽거나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는 생벽자의 사용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는 생벽자의 부활 현상을 중심으로, 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부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생벽자를 추출하여 그 의미와 쓰임새를 고찰하였다.

생벽자는 본래 사용 빈도가 낮거나 잊혀졌던 문자로, 전통적인 문자 체계의 일부로 존재해 왔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자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적인 문자 체계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재창조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추출된 부활 생벽자를 분석한 결과, 일부는 본래의 의미를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특히, 도상적 관점에서 볼 때, 글자의 형태적 특징이 의미 확장과 재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복과 중첩 형식을 통해 강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변화는 생벽자가 단순히 전통적인 문자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시각적 요소와 음운적 특징을 결합하여 현대적 소통 방식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변모 과정을 보여준다. 나아가, 생벽자는 현대 사회에서 감정을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전통 문자가 현대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생벽자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기술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으며,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상징적 매개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생벽자의 부활은 도상성과 중국 정부의 언어 정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도상성은 생벽자가 자형과 의미 간의

직관적 연결성을 통해 현대적으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생벽자의 시각적 특징은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감정 표현이나 직관적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생벽자의 보존과 전승을 지원하며, 이를 유용한 언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벽자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상징적 언어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생벽자의 부활 현상은 중국 문자가 가진 독창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통 문자가 현대 사회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벽자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 문자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문자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 參考文獻

- 조수휘, 리처드 B. 발도프 주니어 저, 전국조 역, 『한자계획: 반동인가, 진화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번역총서 3, 역락, 2023.
- 조르주 장(Georges Jean)저, 이종인 역, 『문자의 역사』, 시공사, 2004.
- 唐蘭, 오만중, 김미성, 박정희 역, 『중국 문자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 裘錫圭, 이홍진 역, 『중국 문자학의 이해』, 신아사, 2010.
- 徐通鏞, 『語言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 徐中舒, 『新編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0.
- 하영삼 역, 『완역 설문해자』, 한국한자연구소 연구총서, 2022.
- 류동춘, 「한자체계의 構形類型 변화에 관한 연구--한자는 왜 假借에서 形聲의 길을택했을까?」, 『中語中文學』 29집, 韓國中語中文學會, 2001.
- 박경송, 「자본위(字本位) 이론과 도상성」, 『동북아 문화연구』 제25권 제1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 임지룡, 「유상성의 인지적 의미분석」, 『문화와 융합』 제16권, 文學과 言語研究會, 1995.
- 임지룡, 「국어에 내재한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 특성」, 『한글』 제266호, 한글학회, 2004.
- 임지룡, 「국어에 내재한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 특성」, 『한글』 제266호, 한글학회, 2004.
- 森博達,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의 漢字文化의 影響」, 『목간과 문자』 제6호, 한국목간학회, 2010.
- 森博達,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의 漢字文化의 影響(續篇)」, 『목간과 문자』 제8호, 한국목간학회, 2011.
- 양준영, 「『三字經』中的生僻字教学初探」, 『중어중문학』 제88호, 한국중어중문학회, 2022.
- 문수정,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를 통해 본 형성자(形聲字) 성부(聲符)의 속성과 그 의미 -단옥재(段玉裁)의 ‘고금자(古今字)’ 관계 설정과 ‘우문

설(右文說)' 논의의 접점을 중심으로」, 『중국문학』7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唐璐璐, 「傳媒文化 網絡古生僻詞研究」, 『文化創新比較研究』第12期, 2022.

朱聖潔, 「淺析“囧”字的古今詞義演變」, 『文教資料』第35期, 2016.

羅群, 「漢字守護計劃: 以科技力量推動漢字數字化進程」, 『中國文化報』, 2023.

央廣網, 〈生僻字可輸入, 騰訊聯合工信部電子標準院、漢儀字庫發起漢字守護計劃〉, 2022年11月11日.

孫博洋, 〈生僻字, 以後可以打出來了〉, 《人民網》, 2022年7月29日.

中國新聞網, 〈生僻字征集”小程序上線“漢字守護計劃”公益行動全新升級〉, 2023年4月23日.

#### 사전 및 기타 사이트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汉典(网站), <https://www.zdic.net>.

북경어언대학교빅데이터 언어교육연구소 말뭉치(BCC, <http://bcc.blcu.edu.cn>)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https://std.samr.gov.cn>)

## Abstract

### A Study on the Revival of Rare Chinese Characters (生僻字) in Linguistic Phenomena

Kim, Mi Seong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the revival of rare Chinese characters (生僻字) in contemporary China. It analyzes the causes behind this phenomenon and examines the meanings and uses of rare characters that have been resurrected and are currently in use.

The revival of rare characters is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iconicity and China's language policies. Iconicity demonstrates how the intuitive connection between a character's form and meaning enables rare characters to be effectively used in modern communication. Additional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the preserv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are characters through digitizatio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ir modern application while ensuring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al script.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evival of rare characters is not merely a restoration of the historical writing system but a process in which these characters are semantically adapted or newly utilized to fit contemporary communication contexts. It illustrates how Chinese characters bridge tradition and modernity, highlighting their potential to serve as practical linguistic resources with enduring value in a rapidly changing era.

**Key words** : Rare Characters, Iconicity, Language Policy, Revival of Rar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 Preservation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